

후두전적출술 후 음성재활에 있어서 식도발성의 명료도 (Speech Inteligibility of Esophageal Voice in Alaryngeal Voice Rehabilitation)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주형로* · 정광윤 · 최종욱

후두 전적출술 후 음성의 소실은 환자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성의 회복은 환자의 재활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고안되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방법은 없다.

식도발성은 기구나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정상인과 같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음성재활법이나, 습득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음성의 질이 나쁜 단점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식도발성의 성공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성공율을 높일 수 있는 수술법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음성재활을 위한 식도발성의 특성이나 언어의 명료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저자들은 후두전적출술 후 고려대학교 음성재활교실에서 집중 식도발성 훈련 후 식도발성을 습득한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언어의 명료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식도발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활방법을 찾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